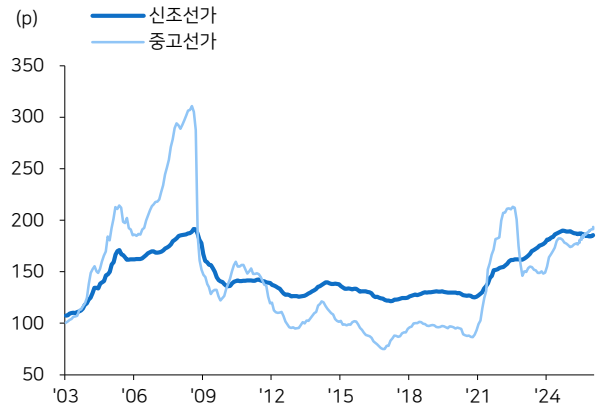
2026. 1. 23 (금)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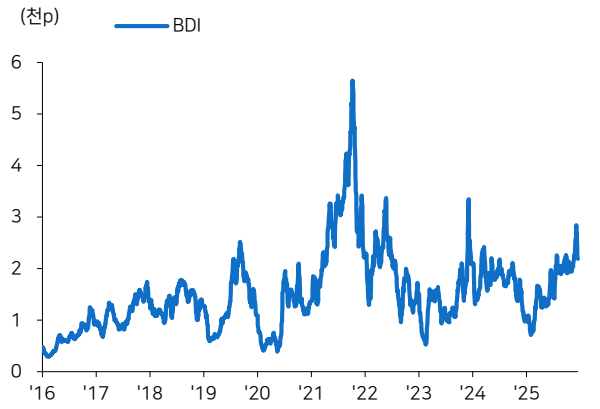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4.7p (-0.6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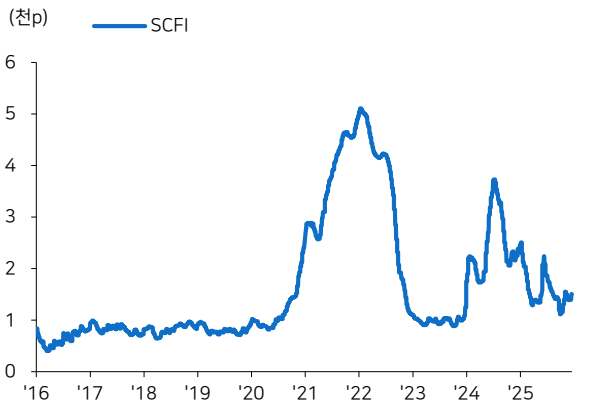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82.0달러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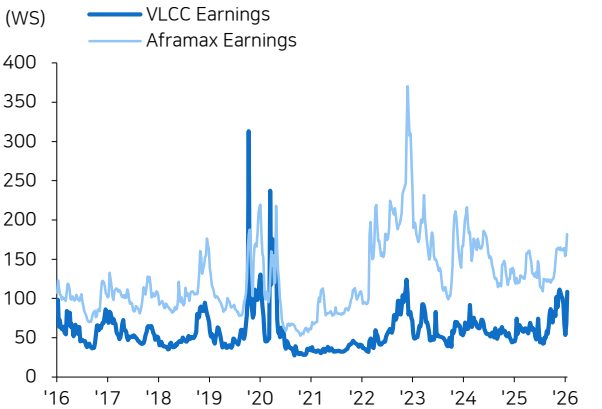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803.0p (+74.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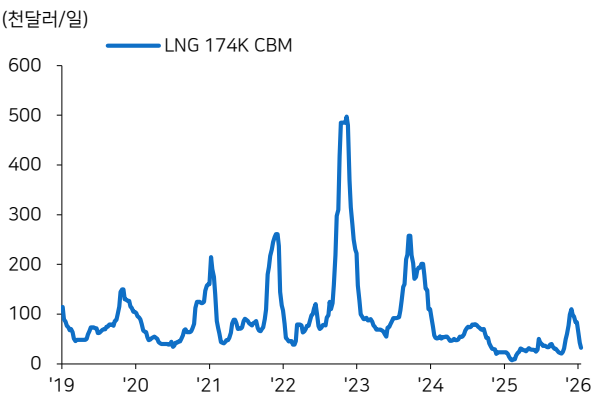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547.1p (-73.3p WoW)



VLCC Spot Rate 108.5WS (+41.0p WoW)



LNG Spot 운임 32.5천달러 (-10.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Petrobras prepares for FPSO boom with $2 billion pipelay vessels tender — **Upstream**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 Petrobras가 캄포스 분지와 산투스 분지 해역에서 운용할 대형 유연 파이프 부설 지원선 PLSV를 대상으로 대규모 입찰을 발주했다고 보도됨. 입찰은 여러 로트로 구분돼 초심해용 대형 PLSV, 상대적으로 얕은 수심용 선박, 수평 부설 시스템(HLS) 적용 특수 선박을 포함하며 2027년 8월부터 2028년 3월 사이 투입을 목표로 한다고 알려짐. Petrobras는 4년 용선 계약을 제시하고 기존 계약 대체를 중심으로 4~5척과 HLS 선박 추가 1척을 검토 중이며 총 지출 규모는 약 20억달러로 전해짐. (https://buly.kr/FhPALCh)

HD 한국조선해양-아비바, '디지털 선박 설계' 강화 맞손 — **뉴스 1**

HD한국조선해양과 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 AVEVA가 디지털 선박 설계 기술 강화를 위해 협력에 나섰다고 보도됨. AVEVA는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를 대상으로 선박 설계 설루션 '아비바 마린' 및 '아비바 자산 정보 관리(AIM)' 설루션 통합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선박 설계 시스템 고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짐. 이번 협력을 통해 HD한국조선해양은 조선 · 해양 설계 전 과정을 하나의 통합 환경으로 연계해 설계 품질과 협업 효율을 제고할 방침으로 전해짐. (https://buly.kr/BIWDfJj)

조선 하청 노조 "HD 현대·삼성重도 원하청 성과급 동일 지급해야" — **아주경제**

대형 조선사 하청 노동자들이 연말 성과급 차별 문제를 공식 제기하며 한화오션과 동일하게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도 원하청 동일 기준 성과급 지급과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고 보도됨.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조선 하청노조 4개 지회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화오션의 협력사 동일 비율 성과급 방침을 계기로 조선업 호황을 맞은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성과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알려짐. 한화오션은 동일 기준 지급 방침을 발표했고 HD현대중공업은 지급 시점을 2월로 늦춘 최고 수준 성과급을 예고했으며 삼성중공업은 별도 조치가 없는 상황으로 전해짐. (https://buly.kr/6iiWJoB)

한화오션, 베트남 최대 수리 조선소 '노스코'와 장기 협력 발판 마련 — **더구루**

한화오션이 베트남 꽝닌성에 위치한 노스코 조선소를 방문해 글로벌 조선 산업 동향과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신조 및 유지 · 보수를 아우르는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됨. 양측은 선박 품질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장기 협력 기회를 검토했으며, 선박 수리 전문인 Northco Shipyard의 80,000 DWT급 수리 역량과 확장 중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협력 범위를 모색했다고 알려짐. 한화오션은 베트남 인력 양성 지원과 현지 기업 교류를 병행해 동남아시아 사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해짐. (https://buly.kr/1cAXiVD)

Operator fires starting gun on new Asian FPSO deal — **Upstream**

인도 국영 Oil & Natural Gas Corporation(ONGC)이 뭄바이 해상 분지 Block MB-OSHP-2018/1 개발을 위해 부유식 원유 · 가스 생산 · 저장 · 하역설비 도입 절차를 개시하고 개조 또는 신조 FPSO를 대상으로 관심 표명서를 요청했다고 전해짐. 해당 FPSO는 원유 처리 능력 약 8,000배럴/일, 가스 처리 능력 100만㎥/일 규모로 수심 15~25m에서 운용될 예정이며 기본 계약 기간 7년에 최대 3년 연장 옵션이 검토 중이라고 알려짐. 국제 FPSO 시장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용선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이는 ONGC가 뭄바이 하이 해역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행보라고 전해짐. (https://buly.kr/882aAmy)

Shandong Marine poised to order LNG carriers backed by Shell charters — **TradeWinds**

중국 국영 Shandong Marine Group이 에너지 메이저 Shell과의 용선 계약을 전제로 175,000입방미터급 LNG 운반선 4척 발주를 검토 중이며 2028~2029년 인도가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Jiangnan Shipyard에서 건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척당 2억3,000만달러 미만의 공격적인 가격 제시가 협상 진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해짐. 다만 Shell은 중국 조선소의 품질과 건조 공정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 승인 여부가 관건으로 남아 있다고 알려짐. (https://buly.kr/3CPMhM5)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